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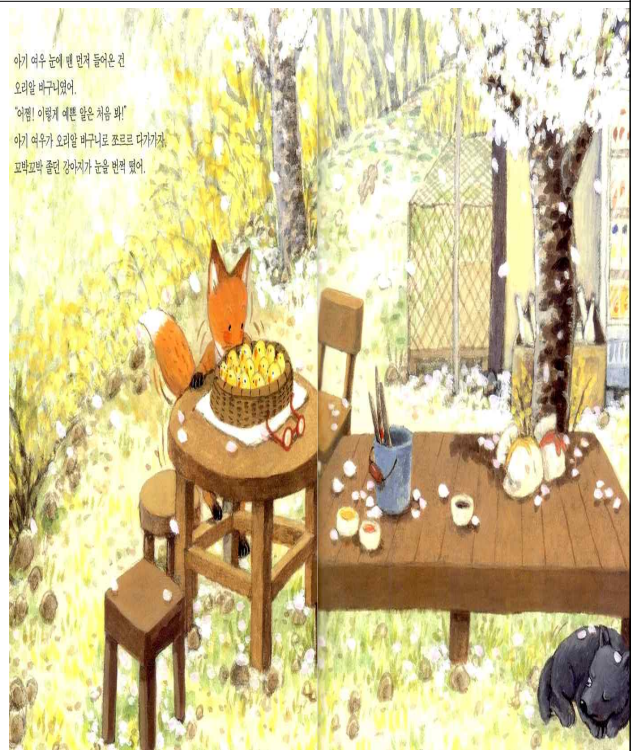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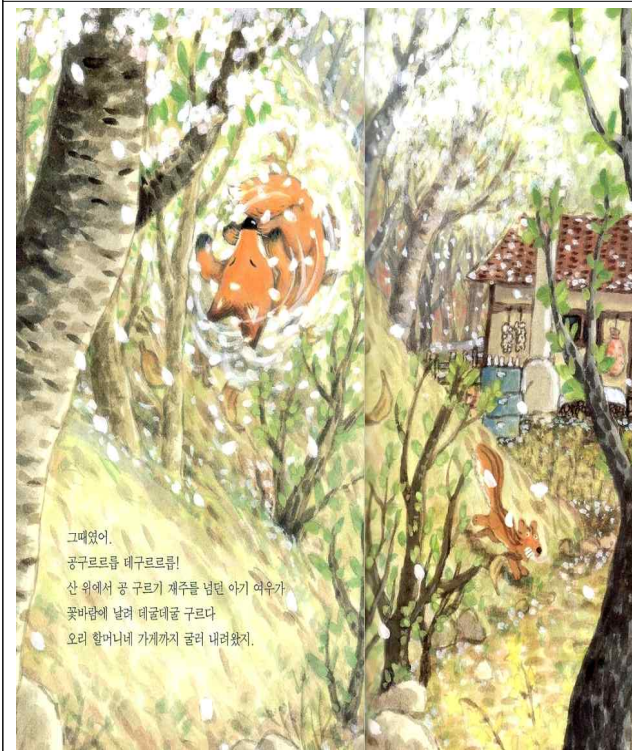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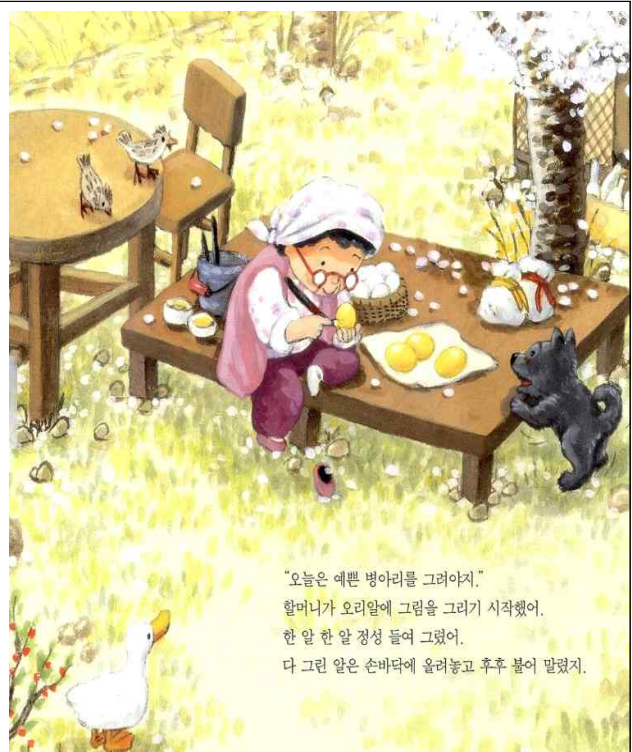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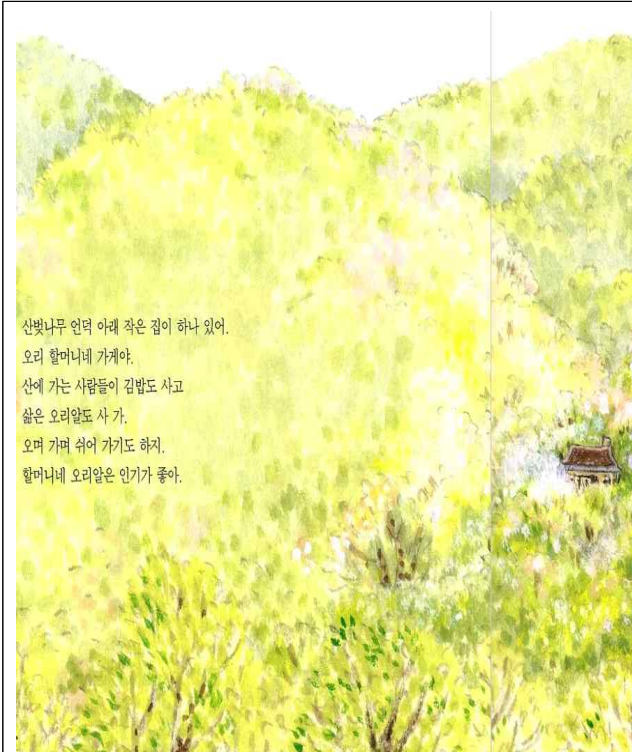


읽기 준비

주요 장면 알아보기 『오리 할머니와 말하는 알』

()학년 ()반
이름 ()

 이야기를 읽고 주요 장면을 살펴봅시다.



그림출처: 책 ‘오리할머니와 말하는 알’/글 이영득/ 보림(2010)

어휘 확장

상황에 맞는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 알기
『오리 할머니와 말하는 알』

()학년 ()반
이름 ()

🎯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아봅시다.

상황	인물	마음을 나타내는 낱말
<p>“모두 병아리가 되었네!” 할머니는 오리알을 바구니에 담아 나무 탁자에 올려놓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어.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뒷밭으로 갔어.</p>  <p>“모두 병아리가 되었네!” 할머니는 오리알을 바구니에 담아 나무 탁자에 올려놓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어.</p>	할머니	
<p>“어쩐! 이렇게 예쁜 알은 처음봐!” 아기 여우가 오리알 바구니로 쭈르르 달려가자, 꼬박꼬박 졸던 강아지가 눈을 번쩍 떴어. “알알알, 월월월!”</p>  <p>“어쩐! 이렇게 예쁜 알은 처음봐!” 아기 여우가 오리알 바구니로 쭈르르 달려가자, 꼬박꼬박 졸던 강아지가 눈을 번쩍 떴어. “알알알, 월월월!”</p>	여우 강아지	
 <p>“이 녀석아, 바지 벗겨지겠다. 무슨 일인데?” 강아지가 오리알 바구니를 보며 막 짚어댔어. “어라?” 할머니는 꼬개를 가웃가웃하다가 이내 끄덕끄덕했어. “정말이다. 말았어! 하나를 빼드려라고?”</p>	할머니 강아지	

그림 출처: 책 오리할머니와 말하는 알/글 이영득/보림(2010)

읽기 유창성 발달	문장부호에 따른 읽기 『오리 할머니와 말하는 알』	()학년 ()반 이름 ()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친구의 학습지에 친구가 읽다가 틀린 부분에 표시해주기

아기 여우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온 건 오리알 바구니였어.
 “어쩐! 이렇게 예쁜 알은 처음 봐!”
 아기 여우가 오리알 바구니로 쪼르르 다가가자,
 꼬박꼬박 졸던 강아지가 눈을 번쩍 떴어.

아기 여우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온 건 오리알 바구니였어.
 “어쩐! 이렇게 예쁜 알은 처음 봐!”
 아기 여우가 오리알 바구니로 쪼르르 다가가자,
 꼬박꼬박 졸던 강아지가 눈을 번쩍 떴어.

“왈왈왈, 월월월!”
 아기 여우는 재빨리 훌딱, 훌딱, 훌딱, 제주를 세 번 넘었지.
 그랬더니 동그란 오리알로 변했지 뭐야. 바구니에 쑥 들어갔어.

알이 된 아기 여우는 코가 간질간질해서 재채기를 하고 말았지.
 바구니 속에서 새하얀 알이 들썩들썩했어.
 강아지는 다시 왈왈 짖어댔지.

“왜 이리 시끄럽누?”
 “이 녀석아, 바지 벗겨지겠다. 무슨 일인데?”
 강아지가 오리알 바구니를 보며 막 짖어댔어.

할머니도 오리알 바구니를 보았지.
 “어라?”
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이내 끄덕끄덕했지.
 “알았다, 알았어! 하나를 빠뜨렸다고?”

할머니가 다시 붓을 들고 막 그림을 그리려는데,
 “아기 여우를 그려주세요!”
 알이 말을 했어.
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. 알이 말을 한 건 처음이니까.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.
 “그래, 귀여운 아기 여우를 그려 줄게.”
 강아지는 기가 막혀서 킁킁거렸어.
 그게 아닌데 말이야.

읽은 사람		확인한 친구	
-------	--	--------	--

